

신정훈 “김영록 지지” 선언...결선 앞둔 경선판 요동

6·3 지방선거 D-54

민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 “金후보, 통합 난제 해결 현실적 대안”
“민형배 투명성·도덕성 회의 느껴” 직격
金·辛·강기정 연대 ‘反민형배 전선’ 구축
姜 “새로운 연대 통해 통합 결실 맺을 것”
金 “전남·광주의 승리 위한 원팀 되겠다”
12-14일 결선투표... 표심 향해 귀추 주목



김·신·강 연대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였던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이 9일 광주 서구 광천동 김영록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김 후보 지지 선언한 뒤 강기정 전 후보, 이병훈 상임선대위원장 등과 함께 승리를 다짐하며 손을 들어주고 있다. /조영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경선 결선투표(12-14일)를 앞두고 본격선거에서 탈락한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이 9일 김영록 예비후보(전남지사 직무정지)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 경선판이 요동치고 있다. 특히 김영록 후보를 중심으로 신정훈·강기정·이병훈 전 후보까지 전남·광주를 아우르는 ‘때머드급 연대’를 통해 ‘반(反) 민형배 전선’이 구축됐다는 점에서 경선 판세에 미칠 파급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2·3·4면

무엇보다 신 의원이 “경선 과정에서 민형배 후보 측이 보인 투명성과 도덕성에 심각한 회의를 금할 길 없다”며 비판의 날을 세운 뒤, “김영록 후보가 통합의 난제를 풀어갈 현실적 대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남은 5일 동안 표심의 향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입장발표문을 통해 김영록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신 의원은 “경선 탈락 후 어떻게 하면 전남·광주 통합과 미래를 여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왔고, 많은 지지자들로부터 이번 선거에 대한 입장과 선택을 요구 받고 고민을 거듭한 끝에 김영록 후보에게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김 후보가 선거 기간 제가제기했던 정치적 기준에는 미흡하지만 엄중한 시기의 전남·광주가 한 걸음이라도 전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난마와 같이 얽힌 통합의 앞날을 생각하면 농어촌에 대한 감수성과 풍부한 행정 경험을 겸비한 김영록 후보가 통합의 난제를 풀어갈 현실적 대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민형배 후보를 향해서는 비판의 날

을 세웠다. 신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민형배 후보 측이 보인 투명성과 도덕성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금할 길 없다”며 “제가 제기한 여론 조작에 가까운 막대그래프, 단일화 여론조사에 대한 조직적 개입에는 남 탓으로 일관했다. 목숨을 건 후보자의 안전보다 정치적 이익을 앞세운 처신에 대해서는 경악을 금할 길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합법을 가장해 당내 경선의 공정성을 유린하고도 부끄러움이 없다면, 자신의 불리한 지적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면 정치인의 정당한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어제는 이미 오래 전에 이탈한 몇몇 신정훈 지지자의 사진이 첨부된 홍보물을 대량 유포하면

서 ‘신정훈 캠프 합류’를 운운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저버린 처사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민형배 캠프가 그러나 전남·광주의 미래를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신 의원은 시·도민을 향해서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결코 녹록하지 않다. 동부권은 산업 위기, 다른 지역은 농어촌 소멸 위기, 광주는 경제 위기까지 총체적 지역 위기를 단순한 의욕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전남·광주 통합의 성패는 이재명 정부의 성패와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단 한 차례의 시행착오

도 허용할 수 없는 절박한 현실에서 광역행정에 대한 경험, 포용과 협치의 정신은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며 김영록 후보를 추켜 세웠다.

신 의원은 “혹시 저를 지지해 주셨던 분들 가운데 저랑 다른 의견이 있는 분이 있다면 고심 어린 저의 입장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언제 어디서라도 오직 전남·광주의 시·도민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후 5시 광주 서구 광천동 김영록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 김 후보, 강기정 전 후보(광주시장 직무정지), 이병훈 상임선대위원장과 함께 손을 맞잡고 지지를 공식 선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앞서 김영록 후보 지지를 선언했던 강기정 전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전남·광주 통합의 제안자 김영록, 추진자 강기정, 입법자 신정훈은 통합의 성공을 위해 함께 뛰겠다”며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강 전 후보는 “우리가 함께 했던 ‘부강한 전남·광주’의 꿈은 새로운 연대 속에서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이라며 “김영록 후보와 함께 가는 이 길에도 변함없이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김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김영록 후보는 “신정훈 후보와 강기정 후보가 전남·광주의 미래와 통합의 대의를 위해 큰 결단을 내려줬다. 세 사람의 뜻은 하나가 됐다”며 “통합과 승리의 시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또 “단순한 후보간 연대가 아니라 전남과 광주가 더 이상 분절된 힘으로 머무르지 않고 하나의 비전과 하나의 방향 아래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서로 다른 경험과 강점을 가진 세 사람이 지역의 미래라는 더 큰 목표 앞에서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오늘의 결단은 매우 상징적이며 무거운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2면에 계속 /김재정·변은진 기자

중동발 고유가·고물가 쇼크...지역경제 ‘비상등’

경유 16%·휘발유 7% ↑ 교통비 부담
면세유 급등 따른 농어가 시름 깊어
여수산단·광주제조업 경기 ‘떡구름’
건설업도 원자재 물류비 상승 우려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해 유가와 물가가 급등함에 따라 광주·전남 지역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소비자물가는 기름값이 폭등하면서 전년 대비 2%대 상승했고 여수국가산업단지

광주 제조업 경기 전망도 떡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관련기사 2·4·5면

9일 국가통계포털 코시스(kosis)에 따르면 지난 3월 광주·전남 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각각 118.9, 119.9로 전년 동월 대비 2.0%, 2.1% 상승했다.

물가 상승을 주도한 분야는 단연 석유류다. 경유(광주 16.2%·전남 16.5%)가 16%대 급등한 것을 비롯해 휘발유(광주 7.8%·전남 7.1%) 가격 상승이 교통비와 물류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고유가에 따른 농어가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시설 하우스 난방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면세유 가격 폭등으로 인해 어선 출항까지

망설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2월 기준 농업용 면세유 가격은 유종별로 16.9-27.4% 상승했으며 농협 계통 무기질 비료 가격도 전년보다 6.0-8.8% 인상됐다. 농업용 필름은 나프타 원료 수급 부족 영향으로 30-40% 가격이 급등해 농가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은 지역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핵심 산업기자인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그 영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여수산단의 경우 여천NCC 가동률은 55%, GS칼텍스와 LG화학 역시 각각 약 70% 최저 수준의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재료 비용 증가와 제품 수익성 악화가 복합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향후 중동 지역의 완전한 휴전이 이뤄지더라도 생산 정상화까지는 최소 2-3개월 가량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 안정화와 수요 회복, 재고 조정 등이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단기간 내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이다.

고유가 여파로 광주 지역 제조업 경기 전망도 어둡다. 광주상공회의소가 실시한 2분기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기준치(100)를 훨씬 밑도는 78을 기록했다. 기업들은 경영 리스크 1순위로 ‘원자재 및 에너지 비용 상승(61.7%)’을 꼽았다. 그만큼 유가 수급 불안 등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불황에 빠진 지역 건설업계도 유가 영향에 대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건설 현장에 사용되는 수입 원자재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건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피해가 있진 않을지 걱정된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임채만·안태호 기자

Today	
광주 실업급여수급자 절반이상이 50대↑	6만
키워드로 보는 영화이야기-‘사유’	14만
남민우·김길리, KIA 쉐넬 릴레이 시구	16만

기본교육

다양한 실력이 미래다

광주광역시교육청